

투데이 칼럼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정밀 타격하면서 북한을 겨냥한 군사적 결단이 가능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도 이란 핵시설 폭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의 이번 공격을 보며 북한이 협상 대신 핵무기 개발에 확신을 가졌을 거란 우려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SNS에 한 뮤직비디오를 올렸다. 이란의 핵시설 타격 때 동원된 미군 B-2 스텔스 폭격기가 공중에서 위용을 자랑하며 날아갔다. 이는 미국 내에서 반이란 감정이 극에 달했던 1980년 발표된 '이란 폭격'이란 곡이다. 트럼프는 "이란의 핵농축 주요 시설들은 완전히, 전면적으로 파괴됐습니다. 중동의 강대, 이란은 이제 평화를 선택해야 합니다."라고 했다. 앞서 미국의 B-2 폭격기가 이란의 핵심 핵시설들을 폭격했다. 미국은 포르도 지하 핵시설에 벙커버스터 GBU-57을 무려 12발이나 투하했다. 무제한 14톤인 GBU-57은 지하 60미터까지 뚫고 들어가도록 설계됐는데, 미국이 실전에서 이 폭탄을 사용



정복규
논설위원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은 이번 미국의 이란 공습 이튿날, 다소 미묘한 반응을 내놨다. 조선중앙TV는 "주권 국가의 안전 이익을 난폭하게 유린한 미국의 대이란 공격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을 집중 비판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비난하지 않으며 이란을 지지하는 표현도 없었다. 미국은 북한 핵문제가 불거졌을 당시 북핵 시설을 정밀타격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1993년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 NPT를 탈퇴했다. 이듬해 클린턴 행정부는 스텔스 폭격기와 순항미사일로 영변 핵시설을 타격하는 계획을 검토했다. 하지만 김영삼 대통령은 '65만 명의 한국군

중 단 한 사람도 전쟁에 개입하지 못하게 하겠다'며 강력히 맞섰다. 민간인 사망자가 100만 명이 넘을 거란 미 국방부 추산까지 나오자, 결국 영변 핵시설 타격 계획은 취소되었다.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 때에도 대북 선제타격을 검토했지만, 막대한 인명 피해와 확전 가능성 때문에 단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오랫동안 핵을 개발해 왔고 핵을 완성했다. 완성된 핵들을 상당히 분산을 시켜 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타격할 수가 없다. 중요한 것은 한반도는 분단된 나라다. 미국이 북핵 시설을 타격한다면, 후폭풍은 훨씬 더 치명적일 수 있

다. 이란은 아직 핵무기가 없고 핵실험도 한 적 없지만, 북한은 핵무기를 50개 정도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핵실험도 이미 6번이나 했다. 북한 핵시설들도 산악지대 지하 깊숙한 곳에 자리잡았는데, 국제사회 감시망을 벗어난 곳들이 더 있을지 모른다. 군사분계선에서 서울까지의 거리는 불과 40km다. 주한·주일 미군기지 뿐만 아니라, 광 공군기지를 겨냥한 핵 보복 반격도 우려된다. 이란과 이스라엘은 1,000km 이상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상전이 불가능하다. 반면 한국은 남북한이 워낙 가까이 있기 때문에 전면전으로 번지게 된다. 서울과 수도권 지역은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에 이미 노출돼 있다. 이번 공습이 어쩌면 북한의 핵 개발을 더욱 부채질할지도 모른다. 이란에서도, 믿을 건 핵무기밖에 없다는 강경파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이란은 북한처럼 NPT 탈퇴 카드로 만지작거리고 있다. 핵이 없으면 결국은 공격받을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북미 대화 무용론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

독자제언

‘작은 무질서’는 어떻게 ‘큰 불안’이 되는가

도심 속 골목길에 버려진 쓰레기, 버스정류장에 붙은 불법 광고물, 새벽 시끄러운 음주소란... 처음엔 그저 '지저분하다', '지끄럽다'는 수준의 불편으로 여겨지지만, 이러한 사소한 무질서가 반복되면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은 눈에 띄게 증가합니다. 미국 뉴욕시가 1990년대 초, 심각한 범죄율을 낮춘 배경에는 '깨진 유리창 이론(Broken Windows Theory)'이 있습니다.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하면 그 지역은 관리되지 않는 공간으로 인식되고, 결국 더 큰 범죄로 이어진다는 이론은 작은 무질서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 곧 강력범죄 예방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 지역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실제로 경찰이 현장에서 접하는 많은 주민 민원은 강력범죄보다 오히려 생활속 무질서에서 비롯된 것들입니다. 방치된 노상 쓰레기, 음주 소란, 쓰레기 무단투기 등은 주민들의 체감 안전도를 낮추고, '이곳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

찰의 현장 대응력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순찰 시 무질서 요소를 조기에 발견하고 조치하며, 무단투기나 불법 광고물 등에 대해 경고·계도·단속을 병행하는 활동이 필수적입니다. 더불어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공공질서 캠페인, 무질서 집중관리구역 지정 등 체계적인 대응도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 스스로가 생활질서의 감시자이자 실천자로 나서는 일입니다. 작은 질서 지키기 운동, 이장단·자율방범대·노인회 등의 참여는 지역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어 막강한 힘이 됩니다. 아이들이 다니는 통학로부터 노년층이 머무는 쉼터까지, 주민이 생활환경을 주도적으로 가꾸는 모습은 곧 그 지역의 품격을 높입니다. 작은 무질서가 방치되면 그 지역의 법질서 전반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작은 질서'에 강한 사회, 그것이 이팔로 우리가 꿈꾸는 안전한 지역사회의 출발점입니다. 설범근순창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 범죄예방계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아슬아슬, 아찔한 묘기 선보이는 서커스 예술제



지난 17일(현지 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세계 서커스 예술제 '아이들-2025'에서 참가자들이 묘기를 선보이고 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사설

전북 완주독립기념관

완주군 완주독립기념관은 완주군 경천면에 있다. 경천면 소재지를 지나 대둔산 방향으로 화암사 사거리가 나온다. 이곳 사거리에서 왼쪽에 있다. 출입문 안으로 들어가면 충렬사 사당이 있다. 이곳에서는 3.1절, 현충일, 광복절, 순국선열의 날(11/17)에 합동 추모제를 지내고 있다. 사당에는 순국선열 애국지사, 국가 유공자의 영정과 위패를 모시고 있다. 충렬사를 나와 뒤쪽으로 오르면 현충문을 지나게 된다. 이 문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기 위해 세운 추념탑을 보위하는 수문장 역할을 한다. 현충문을 지나면 독립운동 추념탑을 마주하게 된다. 탑신부는 사람의 몸이면서 화살을 상징하고, 오른쪽 곡선은 활을 의미한다. 활은 우리 민족의 기개와 절개를 표현했다. 추념탑 옆에

새긴 '나는 조국의 광복을 위해 이 한 몸 바쳤노라.'는 글씨가 있다. 비문이 새겨진 비석 반대편에는 스물여덟 분의 독립운동가 이름이 있다. 추념탑 앞에는 두 개의 기념탑이 있다. 6.25 참전 기념탑은 참전했던 유공자들을 기억하기 위해 세웠다. 옆에는 베트남 참전 기념탑이 있다. 우리나라는 1964년부터 1973년까지 베트남 전쟁에 참전해서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다. 기념관으로 가는 길목에 애국지사 백산 장병구 선생 구국비가 있다. 선생은 1897년 완주에서 출생했다. 1919년 3월 11일 고산면 장남 단세운동에 참여했고, 독립운동 군자금 모집 활동을 하다가 체포되어 대구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1992년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됐다. 기념관에는 완주군 출신 애국지사들 관련 자료가 있다.

‘제8회 수작(秀作) 부리다’ 전시회

‘제8회 수작(秀作) 부리다’ 전시회가 7월 11일부터 17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팔달로 161 전북예술회관 1층 기스라 2실에서 열려 관심을 모았다. 참여 작가는 모두 12명이다. 예송 김영숙 한지조형 - 전주 공예학원 대표, 목정 김창수 전통서각 - 대한민국 서예문인화대전 초대작가, 박은희 광목자수 - 순창군 프랑스자수 강의, 신수경 도예 - 담양방 대표, 화정 유서영 천아트 - 한국명인명장 천아트 명장, 예인 윤문순 민화 - 대한민국 미술대전 초대작가, 예산 이희성 전통매듭 - 전통매듭 명장, 연남자 장복남 연인형공예 - 한국명화예술제 초대작가, 장정아 프리저브드 플라워 - 대한민국 플라워쇼 작가 부 대상, 은강 최금숙 한국화 - 한국서화협회 추천 초대작가, 도원 최노경 현대서각 -

한국서화교육협회 초대작가, 호도리 전효권 목공예 - 수작 부리다 회원전 외 다수가 있다. 회장 전효권 작가는 한국서화교육협회 스크롤소 부문 명장이다. 전주전통공예 전국대전 특선을 비롯 수상 작품이 많다. 한국예술대전 초대작가, 충무공 서화대전 초대작가이다. 현재 호도리우드 공방 대표로 있다. 이번 전시에는 ‘독수리’, ‘여인’, ‘호랑이’ 등을 출품했다. 장정아 작가는 진주, 전주, 대구, 순천 등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정원박람회를 연출했다. 그밖에 산림청, 농림부 행사도 연출한 바 있다. ‘수작(秀作) 부리다’ 전시회는 해마다 전시회를 열면서 인기를 대하고 있다. ‘제8회 수작(秀作) 부리다’ 전시회를 계기로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